

힉클리 대관장, 하와이에서 축제와 기공식에 참석

타라린 트로스트, 교회 잡지

고든 비 힉클리 대관장은 2003년 10월 24일 ~26일 주말에 하와이 제도를 방문하여 하와이 사람들과 공공 기관들과 건물들에 대해 칭찬했다. 이 여행 기간 동안 그 분은 폴리네시안 문화 센터 40주년 축제, 하와이 라이에 성전 주변 지역 미화 프로젝트 기공식,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에서의 특별 합동 대회에 참석하여 하와이 성도들에게 말씀했다.

“교회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갖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을 여기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과

그 주변의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를 갖고 있으며, ... 또 문화 센터를 갖고 있어 참으로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라고 힉클리 대관장은 태평양에서 라이에 성전까지의 할리 라아 블러바드(Hale La'a Boulevard)를 재개발하고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의 새로운 정문을 세우는 프로젝트의 기공식에 모인 2,000명의 주민, 방문자, 동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구하면서 힉클리 대관장은 카메하메하 고속 도로를 따라 운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생겨 “천천히 달리면서 주님의 집을 바라보고 그곳을 찾아와 둘러보며 이 아름다운 곳을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구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로 인해 [당신의] 교회와 그 백성 그리고 그 목적과 소망에 대해 보다 큰 존경이 생겨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해변에 있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명상의 정원, 넓은 가로수 길을 따라 줄지어선 1미터 80센티미터의 파란 바위벽, 성전으로 가는 새로운 우회 도로 및 조정 재공사가 포함될 것이다.

“프로젝트는 성전을 위해 아름다운 전망을 열어 줄 것입니다.”라고 호놀룰루 교회 공보 책임자인 존 호아



폴리네시안 문화 센터에서 공연자들의 인사를 받으며 힉클리 대관장과 자매(가운데)가 10월에 있었던 4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그 형제는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가 성전 주변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향상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주 상원의 멜로디 아두자 의원과 주 하원의 미카엘 마가오아이 의원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 지도자들 또한 이 기공식에 참여했다.

기공식 후에 힉클리 대관장은 부인 마조리 자매와 함께 폴리네시안 문화 센터 40주년 기념 지역 사회 퍼레이드에서 대원수(grand marshal)의 역할을 했다. 예언자의 방문은 센터 40주년 기념일인 2003년 10월 12일을 기념하는 1년에 걸친 기념 행사의 절정이었다.

하와이의 전통 무늬 의상과 아름다운 레이스를 조화시킨 옷을 입은 힉클리 대관장과 자매는 금요일에 문화 센터에서 졸업생들 및 지역의 말일성도들과 함께 알리이(왕족) 루아우 하와이 전통 쇼와 전통적인 폴리네시안 축제에 참여했다.

일요일에 힉클리 대관장은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의 체육관(Cannon Activities Center)에서 하와이 제도 전역에 중계된 방송을 통해 교회 회원들에게 말씀을 했다. 말씀을 하는 가운데 힉클리 대관장은 문화 센터 부지를 찾기 위해 맥케이 대관장이 자신을 하와이로 보냈던 일을 회상했다. 타로 밭을 걸어 지나가면서 당시

예언자의 방문 준비를 도운 학생들

에스 릭 크럼프

대체로 말일성도들은 예언자가 교회 회원들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때때로 회원들이 예언자에게 봉사하는 경우도 있다. 2003년 10월 19일에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 제1스테이크에 속한 약 500명의 독신 성인들이 고든 비 힙클리 대관장의 방문 준비를 하고 있던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 직원들을 돕기 위해 센터로 들어닥쳤다.

2003년 10월은 문화 센터 40주년이 되는 시기였으며 힙클리 대관장이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예언자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스테이크장인 키스 피어스 형제와 보좌들이 센터 직원들과 함께 청소 일정을 협의했다.

청소 일자는 힙클리 대관장의 도착 이전 토요일로 정해졌다. 그 전날인 금요일 저녁에는 하와이 브리감 영 대학교가 연례 행사인 폴볼(Fall Ball)을 호놀룰루에서 개최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학생들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센터의 마을들, 주차 지역과 작은 늪들을 미화하기 위해 새벽 6시 45분에 일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들은 옷기도 하며 농담도 하며 센터 내 곳곳으로 흩어져서 쓰레기와 죽은 식물을 청소하고, 화단의 잡초를 뽑고, 센터를 반짝거리게 만들었다.

청소가 끝난 후 스테이크에 속한 12명의 감독들이 지치고 배고픈 그들의 와드 회원들에게 아침을 제공했다. 학생들은 충분히 먹고 난 뒤에 충분한 힘을 얻어 게임을 하고 의



하와이 브리감 영 대학교 제1스테이크의 독신 성인들이 10월에 있었던 힙클리 대관장의 방문을 위해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의 준비 작업을 돕고 있다.

미 있게 보낸 아침 시간의 정신을 즐겼다.

힙클리 대관장이 주중에 도착했을 때 하와이 브리감 영 대학교 제1스테이크의 회원들은 사랑하는 예언자를 위해 봉사했다는 뿌듯한 기쁨을 누렸다. ■

십이사도 평의회의 힙클리 장로와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는 카메하메하 고속 도로상에 있는 한 장소를 결정했다.

“저는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가] 해를 거듭하면서 성장해 오는 것을 보아 왔으며 그것은 정말로 경이적인 것이었습니다.”라고 힙클리 대관장은 말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훌륭한 조직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얼마나 심오한 것이었습니까.”

올해 하와이를 두 번째 방문하면서 힙클리 대관장은 또한 이 섬의 성도들에게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빛과 모범이 될 것을 촉구했다.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닭고자 하는 덕성들을 우리에게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힙클리 대관장은 대화를 위해 모인

7,000여 명의 교회 회원들에게 말했다.

“많은 회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가슴 벅찬 역사적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역 사회의 다른 주민들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라고 호아그 형제는 힙클리 대관장의 방문에 관해 언급했다. ■

힙클리 대관장, 특별상 수상

솔트레이크 상공회의소와 유타 빅 브라더스 빅 시스터즈(Big Brothers Big Sisters of Utah)는 2003년 10월에 고든 비 힙클리 대관장이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와 그 주민들에게 보여 준 꾸준하고도 헌신적인 봉사에 대해 2003년 10월에 별도의 기념식을 통해 상을 시상했다.

전원 찬성으로 솔트레이크 상공회의소는

10월 29일에 힙클리 대관장을 “우리 시의 거인(A Giant in Our City)”으로 선정했다. 이것은 이 상공회의소가 주는 가장 높은 영예이다.

힙클리 대관장은 현재 교회에서 추진하는 도심의 재활성화 계획을 통해 솔트레이크시티 시내의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공적으로 인정 받았다.

유타 빅 브라더스 빅 시스터즈는 힙클리 대관장에게 2003년 공로상을 수여했다.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 단체는 “지역 사회에 역사적인 봉사”를 한 사람을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

나무에 대한 힙클리 대관장의 사랑을 알고는 이 단체의 수혜자인 몇몇 소년 소녀들이 예언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나무를 심었다. ■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 성도들

리사 앤 잭슨, 교회 잡지

브리감 영 대관장의 방식대로 캘리포니아 레드랜즈 스테이크, 레드랜즈 제1와드의 장로 정원희 회원들은 10월의 한 일요일에 공과를 제쳐놓고 구조대를 조직했다. 주일학교 교실 유리창을 통해 그들은 집회소에서 멀지 않은 산을 이끌거리며 타오르는 화염을 볼 수 있었다.

“우리 대부분은 산에서부터 내려와 우리 주변으로 다가오는 화염을 보고, 그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레드랜즈 제1와드의 장로 정원희 회장인 로버트 엘킨스 형제는 말했다.

장로 정원희 시간 동안에 형제들은 지친 소방관들과 피난민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교회 모임 후 가정 복음 교사들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가족들을 방문했고, “45분에서 한 시간 사이에 손에 들고 온 음식들로 트럭 한 대와 미니밴 한 대를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라고 엘킨스 형제는 말했다.

이 음식들은 샌버너디노 인근에 있는 소방 통제 센터와 지역의 적십자 대피소에 전달되었다.

이 경우는 2003년 10월 하순에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를 황폐화시켰던 화재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말일성도들이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조직했던 여러 예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시미 밸리에서 미국 멕시코 간의 국경까지 확산되었던 이 화재는 740,000 에이커(299,467헥타르)와 3,600 채의 집을 불태우고 22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 지역에서는 약 400,000 명의 말일성도들 가운데 67 가족이 화재로 집을 잃었다. 모든 교회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안전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교회의 어떤 건물도 피해

를 입지 않았다.

그 지역이 일주일에 걸쳐 황폐화된 후인 11월 2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과 북미 서부 지역 회장인 칠십인 정원회의 린 지 로빈스 장로는 샌디에이고 지역의 성도들을 방문했으며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와 북미 서부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칠십인 정원회의 네드 비 루에서 장로는 샌버너디노 지역의 성도들을 방문했다. 지도자들은 위로와 치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패커 회장은 회원들이 집을 잃었을 수도 있지만 가정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시련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함께 일한다면 그들이 모르고 있는 회복력과 저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아이어링 장로는 이렇게 언급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구호 단체들과 협력하여 교회는 광범위한 기부를 했다. 교회는 미국 적십자사와 구세군에게 대규모 기부금을 제공했으며 소방관들과 집을 잃은 가족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감독의 창고를 개방했다. 교회는 또한 지역 집회소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5,000 명의 피난자가 모여 있던 샌디에이고의 쿠알콤 체육관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빌려 주었다.

“대단히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단결하여 도우려는 많은 노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교회의 인도주의 비상 대책 책임자인 개리 플레이크 형제는 말했다.

거의 1,000명의 교회 회원들이 대피하고, 두 가족이 집을 잃은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 스테이크에서는 회원들이 노튼 공군 기지의 격납고에 모여 있는 피난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도왔으며, 빅터 밸리 지역(샌버너디노의 북쪽)의 선교사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지역의 고등학교에 머무르고 있던 피난자들을 위해 여러 차례 연속적으로 뜨거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여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엘커호운과 샌티(샌디에이고 부근)에서는 여러 스테이크가 화재가 일어나기 불과 하루 전에 비상 준비 훈련 모임을 가졌다. 불과 24시간 전에 가르친 체제를 활용하여 교회 회원들은 90분 안에 그 지역에 있는 8,000여 명의 회원들과 연락하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예비 집계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지역에서는 약 44명의 말일성도 가족들이 집을 잃었다.

회원들은 또한 대피한 와드 및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집을 개방했으며 선교사들은 청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샌버너디노에 사는 두에인과 릴레인 닐슨이 불타 버린 자신들의 집을 살펴보고 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 산불로 집을 잃어버린 말일성도 67 가족 가운데 하나이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나와 빈 격납고에 모였다. 지역의 말일성도들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일고 있는 동안 이 사람들과 다른 피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도왔다.

“교회가 일하는 방식은 정말로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라고 자신의 집이 화재의 위협을 받았던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 스테이크의 데일 티 폴슨 스테이크장은 말했다. 폴슨 스테이크장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여러 스테이크장들로부터 자신들의 스테이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는지를 물어 오는 전

화를 여러 통 받았다고 말했다. “성도들이, 아니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사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심을 보이는 것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
손자 에딩스 브라운과 클레이 칼슨이 이 기사를 기고했다.

지역 지도자들, 가족 가치관 상 수상

거의 10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퍼스의 교회에서 한 시상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그 뒤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채택되었고, 2003년에는 지역 사회에서 가족을 장려한 여러 사람들에게도 이 상이 주어졌다.

2003년 9월 14일 퍼스에서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이며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린지 티 딜 장로가 가족 가치관 상을 세 명의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사회 지도자들에게 수여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야당 지도자인 콜린 바닛은 임신 중절 반대 및 마약 사용 반대 운동으로, 개혁파 교회의 피터 아베츠 목사는 지역 사회에서 가족을 위해 펼친 한결같은 노고에 대해, 그리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와 빅토리아 주에 있는 내셔널 시빅 카운

실의 전 지도자 키어런 라이언이 이 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수상식에서 딜 장로는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했으며, 사랑에 찬 가정에서의 자신의 성장을 예로 들었다. 각 수상자는 교회가 지닌 높은 가치관에 대해 교회를 칭찬했으며, 세 수상자 모두는 이런 명성 있는 상을 받게 되어 겸허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

아 퀸즈랜드 주 로잔에 있는 에이트 마일 플레인즈 워드 예배당에서 2003년 10월에 열린 가족 가치관 시상식에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로버트 엠 코완 장로는 탁월한 세 시민들의 지역 사회에 끼친 귀중한 기여를 치하했다. 수상자들은 서던 퀸즈랜드 대학교의 부총장인 수잔 범브릭, 파인 리버 셔(브리즈번 북쪽) 시장인 이봉 챔프만, 퀸즈랜드 스테이트 야당 지도자이자 서던 다운즈를 대표하는 국회 의원인 로렌스 스프링보그 의원이다.

스포츠 영웅들이 존경을 받고, 영화 배우들이 우상화되고,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전통적인 가치관들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는 지역 사회 일꾼들을 얼마간이라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코완 장로는 말했다.

뉴질랜드 웰링턴에서는 뉴질랜드 웰링턴 스테이크의 조지 하비 스테이크장이 치안 판사인 홀라 타우에게 2003년 웰링턴 지역 가족 가치관 상을 수여했다. 웰링턴에서 치안 판사로 임명된 최초의 통가 사람인 타우에 여사는 오랫동안 통가 지역 사회와 태평양 제도 주민들의 이민, 주택 및 법률 분야를 담당했다.

하비 스테이크장은 가족 가치관이 지역 사회의 힘과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으며 또 타우에 여사의 가정 생활과 다른 사람에게



린지 티 딜 장로(왼쪽)가 교회 가족 가치관 상의 수상자들과 오스트레일리아 퍼스에서 자리를 같이했다. (왼쪽부터) 피터 아베츠 목사, 콜린 바닛, 키어런 라이언.



남편 루카 타우에와 함께 있는 홀라 타우에. 타우에 여사는 가족을 강화시킨 공로로 뉴질랜드에서 교회로부터 상을 받았다.

본이 되었던 자원 봉사에 관해 언급했다.

사상 처음으로 영국 런던의 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두 개의 가족 가치관 상을 수여했다. 10월에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이며 유럽 서지역 회장인 해롤드 지 힐렘 장로는 재무장관이자 의회 의원인 폴 보팅 경, 그리고 부모 교육 및 지원 포럼(Parenting Education and Support Forum)의 대표인 메리 크로우리에 상을 수여했다. 보팅 경과 크로우리 여사, 두 사람은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 가족의 목적

을 강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해 왔다.

수상식에서 힐렘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가족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계에 걸쳐 가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향상시키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우

리는 가족을 보다 강하게 만듦으로써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존 에이 그린서리, 티오피로 헤이프 로나, 런던 공보 사무실이 이 기사를 제공했다.

에티오피아에 대한 교회의 지속적인 지원

사라 제인 위버

프로젝트 merci(Project Mercy)의 중역이자 설립자인 마르타 가브레 차덕 여사가 교회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2003년 10월 24일에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했다. 이는 교회에서 생산한 아트미트라 불리는 죽이 에티오피아에서 어린이들과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웰페어 스퀘어 우유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가브레 차덕 여사는 교회가 생산한 아트미트 160톤 일부의 포장을 도왔다. 이 물건들은 나중에 그녀의 조국에서 기아에 허

덕이는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프로젝트 merci와 함께 협력하여 교회는 이미 400톤의 죽을 에티오피아에 배급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역사상 가장 끔찍한 기아의 위기라고 믿고 있는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교회는 현재 아트미트를 생산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이다. 귀리 가루, 설탕, 분유, 비타민/무기물 혼합물로 만든 죽은 심한 영양 실조에 걸려 알곡이나 거친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소화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웰페어 스퀘어에 있는 교회의 데저렛 우유 가공 생산 시설이 아트미트를 생산하는 데 아주 적합하다는 점이 기증을 가능케 했던 이유들 가운데 하나라고 에이치 데 이비드 버튼 감독은 설명했다.

“이 어린이들에게는 참으로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영양 실조에 걸린 이 어린이들을 먹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아트미트를 만들어 내는 어떤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하는 동안 가브레 차덕 여사는 버튼 감독과 이야기하고 기자들과 만나고 웰페어 스퀘어에서 자원 봉사자들에게 말씀을 했다.

“그녀는 설득력이 있었고, 감사를 표했으며, 나아가 교회가 전세계에 있는 회원들의

청녀 총회 및 제174차 연차 대회

다음은 교회에서 앞으로 있을 중계 방송을 상기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여러분의 지역에서의 생방송 또는 녹화 방송의 정확한 시각과 장소에 대해서는 지역 지도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또한 음성 생중계 방송, 녹화 비디오 방송, 지난 대회 자료에 대해서는 www.lds.org 또는 여러분 나라의 사이트를 방문해 보기 바란다.

청녀 총회

일자: 2004년 3월 27일

시각: 오후 6시 *

일요일 오전 모임: 오전 10시

일요일 오후 모임: 오후 2시

* 모든 시각은 미국 산지 표준시(MST)로 표기되었다.

제174차 연차 대회

일자: 2004년 4월 3~4일

시각: 토요일 오전 모임: 오전 10시

토요일 오후 모임: 오후 2시

신권 모임: 오후 6시

언어: 청녀 총회 방송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되며, 연차 대회 방송은 5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된다. 여러분의 언어로 제공되는 지에 대해서는 지역 지도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관대함 때문에 베풀 수 있었던 도움에 관해 크게 감동했습니다.”라고 버튼 감독은 말했다.

아트미트 외에도 교회는 또한 옥수수-간장 혼합물인 유니믹스를 기부했다. 교회는 가톨릭 구호 기관과 함께 에티오피아 공급자와 그 혼합물을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적으로 교회는 3월 이후로 5,700톤 이상의 식품을 에티오피아에 제공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기아에 허덕이는 이 어린이들을 안아 주고, 먹여 주고 만져 주었으며, 그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생존자들을 대신하여 이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행한 정말로 훌륭한 일입니다.”라고 가브레 차덕여사는 데저렛 뉴스 기자에게 말했다.

2003년 11월 1일 처치 뉴스에서 발췌



프로젝트 머시의 설립자 마르타 가브레 차덕과 남편 데메케 테클레 울드가 아트미트의 생산 공정에 관해 배우고 있다. 아트미트는 에티오피아에서 기아와 싸우기 위해 교회가 생산하고 기증한 특별 식품이다.

언론에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을 기리다

교회 제13대 대관장인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1899~1994)과 그의 유산을 기리는 기념식이 11월에 수도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 기념식은 벤슨 대관장의 미국 농무 장관 임명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은 확고한 원리의 토대 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웠습니다.”라고 현 농무 장관인 앤 엠 베네만 장관이 말했다.

임명 당시 성임된 사도였던 벤슨 대관장은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래서 1953년부터 1961년까지 봉사했다. 그는 농무부에서 여러 변화들을 수용한 공적을 인정 받고 있으며, 그 변화들은 현재도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

말일성도이며 부친이 농무부에서 벤슨 대관장과 함께 일했던 고든 에이치 스미스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소년 시절에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벤슨 [대관장님]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분에게서 가장 많이 배웠다고 생각되는 것은 말일성도들이 고위 직책에서 일을 수행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에 참되게 생활했다는 점입니다.”

사모아 성전 재건축 기공식

거의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2003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년 10월 19일 사모아 아피아 성전의 재건축 기공식에 참석했다. 기공식은 원래의 성전이 화재로 소실된 지 꼭 3 개월 후에 열렸다.

“그 훌륭한 성전을 잃었을 때, 엄청난 고통이 사모아 성도들에게 닥쳤습니다.”라고 태평양 제도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이며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인 데니스 이 시먼즈 장로는 말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과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한 집이 주님을 위해 건립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정부 관리들, 그리고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기공식에 참석했으며 거기에는 감리 감독단 제1보좌인 리차드 시 에즐

리 감독,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비버 티호 칭 장로, 최근에 사모아 아피아 성전장에서 해임된 다니엘 에이 베담 형제, 그리고 사모아의 투일라에파 아이오노 사이레레 마리에레가오이 수상도 있었다.

“주님은 사모아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핑클리 대관장께서도 사모아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성전이 불타고 일주일도 안 되어 핑클리 대관장께서는 ... 우리가 사모아에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에즐리 감독은 기공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했다.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거룩한 어구가 다시 이 성스러운 대지를 거룩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새 성전의 건축은 18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합창단이 국가의 최고 훈장을 받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1월 12일 백악관에서 거행된 한 특별 행사에서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에게 국가 예술 훈장을 수여했다. 합창단장인 맥 크리스티슨 형제가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을 대표하여 그 훈장을 수상했다. 음악 지휘자인 크레이그 제섬, 부 지휘자인 맥 윌버그, 태버나클 오르간 연주자인 존 롱허스트, 합창단장 보조인 스탠 패리쉬, 음악과 진리의 말씀의 낭독자인 로이드



교회 및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새로운 사모아 아피아 성전 건축을 위해 삽을 뜨고 있다. 거의 1,000명의 사람들이 기공식에 참석했다.

뉴웰 형제가 이 시상식에 참석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국가 훈장을 받은 것에 관해 합창단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의 비결은 360명의 단원이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점입니다. … 우리는 그들이 들인 그 엄청난 노력에 걸맞은 훌륭한 영광을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말했다.

국가 예술 훈장은 예술적 탁월함에 대해 국가가 주는 최고의 훈장이다. 이 훈장은 미국에서 예술적 창작, 지원 및 성장에 뛰어난 기여를 한 개인과 단체에게 미국 대통령이 연례로 주는 것이다.

시에라리온의 자매들, “비전을 지니라”

프리타운과 웰링턴에서 온 약 220명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2003년 10월 4일에 그들을 위한 최초의 여성 대회를 위해 시에라리온의 프리타운에 모였다. “서로 사랑하라—상호부조회의 비전을 지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지방부가 함께한 대회에는 워크숍, 낭독극, 그리고 신권 형제들이 제공한 점심 식사가 포함되었다.

대회는 처음에는 보 지방부도 참여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교통비 문제로 프리타운에서 280킬로미터 떨어진 보 지방부의 회원들은 2003년 9월 13일에 자체적으로 여성 대회를 가졌으며 거기에는 약 200명의 자매들이

참석했다.

브리감 영 대학교의 럭비 선수들, 국가 대표 팀에서 활약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머드기라바 출신의 교회 회원이며 브리감 영 대학교 럭비 팀 코치인 제렛 아켄헤드 형제가 자신의 선수들 중 두 명을 미국 대표팀에서 훌륭하게 뛰도록 지도했다. 이 대표팀은 미국을 대표해 2003년 11월에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서 열린 럭비 월드컵에 참가했다.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는 걸출한 럭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리감 영 대학교는 1962년에 시작

된 럭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미국 최초의 대학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라고 아켄헤드 형제는 말했다.

아켄헤드 형제는 10년 전에 브리감 영 대학교에 처음 온 이후로 계속해서 럭비와 인연을 맺고 지내왔다. 아켄헤드 형제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럭비 선수로 뛰었다. 그 시절에 럭비팀은 겨우 네 경기에서만 패배를 당했다. 나중에 그는 럭비팀의 코치가 되었다.

아켄헤드 형제가 지도한 뛰어난 선수들 가운데 두 명은 김볼 크자르와 살레시 시카로이며 두 사람 모두 귀환 선교사로서 2003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럭비 월드컵에 참가했던 미국 국가 대표팀에 선발되었다. 이 경험은 특별히 유타 주 바운티풀 출신의 크자르 형제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선교 사업을 했던 도시로 돌아가서 경기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저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언젠가 브리즈번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럭비 때문에 제가 선교 사업을 했던 곳으로 다시 가게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크자르 형제는 말했다.

아켄헤드 형제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의 럭비는 세계 어느 곳에서의 럭비와는 색다른 경험이라고 말했다. “세계 곳곳에서는 럭비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은 최근에 미국에서 최고의 예술 훈장을 받았다. 이 훈장은 조지 더블류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수여했다.

선수들이 불량배로 명성이 자자하지만 여기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는 그 정반대이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매경기 전에 기도하며, 지혜의 말씀에 순종

합니다. 팀원의 80퍼센트가 선교 사업을 다녀왔으며, 나머지 20퍼센트도 선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수권 대회가 일요일마다 열려 브리감 영 대학교는 참가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이 나라의 우수한 팀들과 같이 여전히 경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여전히 우수한 팀의 하나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2004년 3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4년 3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의 어린이란 4쪽과 5쪽의 “다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참조한다.

1. 뒷면에 질문이 적혀 있는 네 개의 커다란 물음표를 준비한다.(아래 참조) 칠판에 더 커다란 물음표를 그리고 그 위에 다음 질문을 적는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오늘 어린이들이 하나의 중요한 질문에 대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준다. 어린이들에게 네 개의 대형 물음표를 보여 주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칠판에 적혀 있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준다.

방 밖으로 내보낼 한 어린이를 택한다. 다른 한 어린이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표지를 주고서 그 어린이에게 질문1을 숨기게 한다. 첫 번째 어린이를 방으로 다시 들어오게 한다. 그 어린이로 하여금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질문을 하게 하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여 숨겨진 질문을 찾게 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세상을 나타내며 상황에 따라 진실이나 거짓을 말할 수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숨겨진 곳을 알고 있고 또 항상 진실을 말한다. 질문을 찾게 되면 그 어린이가 질문을 읽고 대답을 하게 한다. 해당되는 노래를 부르고(또는 성구를 읽고) 어린이들이 귀기울여 답을 듣게 한다.(만일 그 어린이가 대답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노래나 성구 읽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어린이가 귀기울여 대답을 듣게 한다.) 방 밖으로 나갈 어린이와 도움을 줄 어린이를 새로 선택한다. 다른 질문들을 활용하여 활동을 반복한다.

질문, 답 및 해당 노래 또는 성구: (1) 전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돕기 위해 누가 자원하여 선택되었는가?(예수 그리스도), “나 하늘에서 살았네”(리아호나, 1999년 4월호, 친5쪽); (2)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구세주의 모범을 따르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일), “신앙으로 주님 따르리”(리아호나, 2003년 2월호, 친16쪽); (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 “성찬”(리아호나, 2000년 4월호, 친11쪽); (4)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죄로부터 구원될 것인가?(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신앙개조 제3조.

어린이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게 하고,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읽었을 때 일어서게 한다. 중요한 질문이 적혀 있는 칠판을 바라보라고 말한다.

(세상을 나타내는)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부모님, 예언자, 교사를 나타내는) 도움을 주는 사람에 담긴 뜻을 어린이들과 함께 살펴본다.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으며 또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점을 설명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 간증한다. 가정의 밤에서 토론을 하도록 어린이들이 작은 물음표들을 집으로 가져가게 한다.

2. 여덟 살이 되면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옳은 것을 택할 선택의지를 갖게 된다는 점을 어린이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옳은 것을 선택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한쪽 면에 “멈춤”, 다른쪽 면에 “옳은 것을 택함”이라고 적힌 작은 표지판을 여러 개 만든다. 사례 연구(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65~166쪽)를 몇 가지 준비한다. 예: 책 한 권을 빌렸는데 실수로 그것을 비 맞게 하고 말았다; 엄마가 잘 시간이라고 말했지만 텔레비전 쇼를 끝까지 보고 싶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임에 여러분의 친구는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표지판들을 전달하는 동안에 옳은 것을 택하는 것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옳다(또는 여러분이 택한 노래와 찬송가에 있는 다른 낱말)는 낱말이 가사로 나왔을 때 표지판을 들고 있는 어린이들이 ‘멈춤’을 쳐들게 한다. 노래를 멈추고 어린이들에게 답을 할 사례 연구를 하나 준다. 행할 옳은 일을 알고 있다면 그들 표지판의 ‘옳은 일을 행함’을 들고, 답을 모를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례 연구에 답하는 것을 돕게 한다. 계속해서 노래 부르기와 사례 연구에 답하기를 한다. 어린이들에게 이 노래들과 찬송가들을 한 주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한다. 어린이들이 결정을 내릴 때, 노래와 찬송가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유의: 여덟 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아직 책임질 연령이 아니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한다. 그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격려한다.)

3. 보충 자료: “살아 계신 그리스도—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3쪽; “신약 이전”,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친6~10쪽;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 리아호나, 2003년 3월호, 친9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송형택, 송병철 형제



송병철 형제 가족

추운 겨울날의 어느 안식일 아침. 늦잠을 자고 싶은 동생은 교회에 가야할 시간이 다 되도록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자꾸 피를 부리는 동생을 다그치던 형이 안되겠다 싶었는지 마지막 방법을 쓰기로 했다. 형은 오른손을 머리 높이까지 올리고 누워 있는 동생을 향해 소리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교회로 가라.”

평소와 너무 다른 형의 얼굴을 이불 틈 사이로 본 동생은 바로 일어나 교회로 향했다.

상계 지부의 개구쟁이 두 청남인 송형택, 송병철 형제. 지금은 자신이 자란 지역의 신권 지도자가 되었다. 송형택 형제는 얼마 전까지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감독으로 봉사하며 자신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에 모이게 하였다. 실제로 상계 와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에게 “상계의 기적”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자랑한다. 또한 송병철 형제는 서울 동 스테이크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이 두 형제가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누나들의 도움이 컸다. 송병철 형제가 두 살배기 아기였을 때, 중학생이었던 둘째 누나 송명숙 자매는 같은 반 친구인 김복순 자매를 따라 교회에 갔고, 침례를 받은 뒤 동생들을 차례 차례 교회로 인도했다. 먼저 바로 아래 동생인 송현영 자매에게 교회를 소개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남동생 송형택 형제가 침례를 받았다.

송형택 형제가 청남일 당시 청소년들의 교회 모임은 활동 모임이

대부분이었다. 상호 향상 모임에서의 소풍, 야영, 포크 댄스는 호기심 많은 사춘기 청남에게는 엄청난 즐거움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에 대한 애착을 심어 준 것은 당시 모든 모임에 함께 해 주었던 청소년 지도자들이었다. 미숙하더라도 역원들은 항상 “너 정말 잘하는구나!” 하며 칭찬을 해 주었는데 그럴수록 기대에 저버리지 않기 위해 교회 활동에 더욱 열심히 임했다. 어느날 지도자들은 청남들에게 한 사람씩 교회로 데려오도록 과제를 주었다. 그 때 세 살 아래 동생인 송병철 형제를 데려왔다. 침례를 받은 송병철 형제는 누나들과 형이 그랬던 것처럼 막내 동생 송현미 자매를 교회로 데려왔다.

송형택 형제에게 청소년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송병철 형제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신앙을 키우는 데는 형의 도움이 컸다. 함께 청소년 활동을 하고 신권 지도자로서 성장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델이 되어 준 것이다. 송형택 형제는 특히 가정에서 신권 지도자로서 동생을 접견하고 축복했다.

스무 살이 되어 선교 사업을 나갈 때도 그랬다. 송형택 형제가 선교 사업을 나갔을 때는 임지로 떠나는 날까지도 등을 돌리셨던 부모님이 송병철 형제가 선교사 훈련원에 갈 때는 새로 맞춘 양복을 챙겨 주며 “열심히 하고 오너라” 하고 악수를 청하였다. 선교 사업 후에 확연히 달라진 아들 송형택 형제에게서 부모님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얻었던 것이다.

송병철 형제는 최근에 어느 자매 선교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보낸 선교사는 송 형제가 부산 선교부에서 봉사할 때 침례를 주었던 가족 중 한 명이였다. 당시에는 초등학교였던 어린 아이가 선교사로 성장한 것이다. 중학생이던 누나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 개종의 고리는 동생들에게 바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고리는 동생들의 성전 결혼과 선교 사업, 부름을 통해 더 넓고 길게 뻗으며 또다른 개종의 싹을 틔우고 있다.

* 리아호나 편집팀에서는 청소년기에 침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는 분들의 간증을 모으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송형택 형제 가족

동계 청소년 대회

말일성도 청소년들 따뜻한 겨울나기. 2004년 동계 청소년 대회가 지난 1월과 2월 초 전국 각지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개최되었다. 작년 여름, 전국 산과 바다에서 뜨거운 여름나기 소식을 보냈던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에는 여름 반대편에서 따뜻한 겨울 이야기를 보내왔다.

광주 스테이크 청소년들(사진 1)은 여느 때보다 의미있는 겨울 방학을 보냈다. 10여 명의 청소년들이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여 대회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 계획과 조편성까지 직접 준비한 것이다. 준비 위원회 청소년 회장으로 봉사한 임재홍 형제는 마지막 날 간증 모임에서 “이번 청소년 대회를 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책임감입니다.”라며 이번 대회에서 경험한 희생과 축복을 간증했다.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을 체험하는 산행과 ‘삶이란’, ‘사교란’이란 제목으로 열린 스테이크장단의 세미나, 예비 선교사 훈련반, 요리 콘테스트, 무도회 등 다양한 활동이 가득했던 대회였다.

서울 북 스테이크 청소년들(사진 2)은 각 와드 지부 별로 청소년 대회를 열었다. 각 지역마다 교회 건물과 산장, 바닷가 등지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청소년 표준과 가치관을 높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추구했다.

서울 스테이크 청소년들(사진 3)은 베어스 타운 스키장에서 동계 청소년 대회를 즐겼다. 청소년들은 겨울 스포츠인 스키를 배웠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마사지를 하며 피로를 풀었다. 또한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일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는데, 학교와 집, 교회에서 당장 그만둘 것과 꾸준히 해야 할 것, 지금 시작해야 할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서울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그만 둘 것으로 지나친 컴퓨터 게임, 험담, 공과 시간에 떠들기 등을



주로 꼽았고, 시작해야 할 것으로는 다이어트와 경전 읽기, 선교사 기금 모으기 등을 발표했다.

청주 스테이크 청소년들(사진 4)은 청소년 대회를 통해 청주 지역의 전통 청소년 축제인 ‘바운티폴’을 부활시켰다. 수년 전 6회를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못했던 이 축제의 맥을 다시 잇는 제7회 바운티폴 축제가 열린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를 동안 역원들과 초빙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공연 준비를 했고, 청소년 대회 마지막 날 스테이크 센터에 모인 회원들과 함께 축제를 열었다. 아름다운 핸드벨 연주와 피아노 연탄, 피아노 플루트 2중주, 영화 ‘반지의 제왕’을 패러디한 연극, 퍼포먼스 ‘학교-우리들의 일기’ 등으로 갈채를 받았다.

안양 스테이크 청소년들(사진 5)은 스테이크장단과 함께 강촌에서 청소년 대회를 열었다. 구곡 폭포를 등반하고 눈썰매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들이 준비한 무도회로 대회의 절정을 이루었다. 이튿날에는 스테이크장단과 함께 선교 사업에 대한 세미나를 한 후, 각자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발표했다.

전주 스테이크 청소년들(사진 6)의 청녀 새로운 시작과 동계 청소년 대회는 전주 모악산 도립 공원에서 열렸다. 5시간 동안 모악산을 등반하며 청녀들은 청녀 주제를, 청남들은 성찬 축복문을 암기하는 활동을 했고, 산정상에 올라 식사를 하고 간증 모임을 했다.





마산 스테이크 청소년들(사진 7)은 경남 고성에서 동계 청소년 대회를 열었다. 올 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역원으로는 처음 대회에 참가한 임효진 자매는 이렇게 간증했다. “이렇게 설레는 청소년 대회는 처음이었습니다. 대회를 위해 많은 준비는 하지는 못했지만 각오나 다짐은 남달랐습니다. 지파장이 지파를 잘 통솔하도록, 청소년들이 협동하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면에서 궁리해 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고문으로 참석한다면 이번보다 잘 준비해서 청소년들을 더 잘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서울 영등 스테이크 청소년들(사진 8)은 포천 산정 호수 한화 콘도에서 청소년 대회를 열었다. 올해 특히 초등학교에서 진급한 청소년이 많았던 서울 영등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호수에

서 눈썰매를 타며 겨울 놀이를 즐겼고, 철새 도래지, 제2 땅굴 등을 견학하면서 견문을 넓혔다.

부산 서 지방부 청소년들(사진 9)은 한정운 지방부장의 감리 아래 3일 동안 청소년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하였다. 청소년 대회의 일환으로 열린 훈련원에는 열 다섯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며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 선교사 명찰을 단 청소년들은 전임 선교사들과 함께 전도를 하여 36명의 이웃들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오기도 했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 청소년들(사진 10)은 김포 강화 청소년 수련원에서 동계 청소년 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신사와 숙녀되기’라는 이름으로 무도회가 열렸는데, 청남, 청녀들은 무도회 전에 무도회 예절 교육을 받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포크 댄스를 즐길 수 있었다. 또한 청남들은 청녀들을 위해 꽃을 만들었고, 청녀들은 케이크를 만들어 함께 나누기도 했다.

대구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경남 남해군 다랭이 마을에서 청소년 대회를 열었다. 스포츠 파크, 해오름 예술촌, 공룡 유적지, 사천 박물관 등 남해의 명소를 둘러본 청소년들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연날리기, 짚풀 공예, 농사일을 하며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농촌 생활을 체험했다. 대회 기간 동안 모범을 보인 청소년을 표창했는데 최우수 청남상은 경산 지부 김병우 형제가, 최우수 청녀상은 상인 와드 배진희 자매가 받았다.(박유미, 김창규, 권순길, 오경권 기자, 박광선, 백길환, 오은용, 신성식 기사 제공)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반석



기구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지도자들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전국 청년 지도자 훈련 모임이 지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렸다. 각 지역의 청소년과 독신을 담당하는 역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모든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던 이번 모임의 주요 화제는 '활동을 계획하고 인도하는 방법'이었다.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온 영들은 특별한 영들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라는 말씀으로

모임의 문을 연 고원용 장로는 '신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참석자들의 전인적인 재능을 이끌어 내야 하며 모든 회원들이 참석하도록 노력하는 교회 모임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회 활동의 기본 원리 세 가지를 말씀했다.

먼저 '활동 모임 계획'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서울 강서 스테이크와 청주 스테이크에서 활동을 계획하는 실례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서울 동 스테이크와 부산 스테이크에서 '삼색 활동'과 '퀴즈 대회'를 진행하며 모범적인 '활동 모임 인도' 방법을 보여 주었고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 성공적인 모임을 위해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만들었다.

한편 고원용 장로는 2005년 여름에 맞는 한국 선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문화의 밤'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실제로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허병석 형제가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고원용 장로는 “이번 훈련 모임으로 한국 교회의 청소년과 독신 회원들의 활동이 발전하여 2005년에 열릴 문화의 밤 행사의 격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이번 훈련 모임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최재현 기사 제공)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지역 헌납 50주년 기념 포스터 및 “가정은 지상의 천국” 스티커 디자인 공모

목적

- (1) 50주년 기념 포스터: 2005년(8월 2일)이면 우리 나라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한국 지역을 헌납한 지 50주년이 됩니다. 이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2005년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 내외의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 및 비회원들에게 더욱 의미있는 2005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2) “가정은 지상의 천국” 스티커: 시대 흐름에 맞추어 보다 뛰어난 디자인을 통해 성도들이 교회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출품 부문

- (1) 50주년 기념 포스터

(2) “가정은 지상의 천국” 스티커

출품물 규격 (규격 제한 없음)

- (1) 50주년 기념 포스터: A3 규격 (3종 이내)
 - (2) “가정은 지상의 천국” 스티커: A4(3종 이내)
- * 실제 크기의 원본을 출품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2차 심사시 요청받게 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2004년 4월 30일(금) 오전 8:30~오후 5:30

접수처

(우편 접수시)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133-600 포스터 공모 담당자 앞
(방문 접수시) 서울시 신당 6동 103-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3층

문의

전화: 02-2232-1441(내선 번호 550)
팩스: 2253-1395
이메일: chohs@ldschurch.org 조현석

심사

한국 공보 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공보 관계자들이 1차 심사하여 총 출품작 중 1/2을 선정하고, 이후 지역 회장단 및 공보 관계자로 구성된 2차 심사 위원단이 1차 선정된 작품 중에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시상

최종 시상자 전원에게 한국 공보 위원회에서 마련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나운서 이규봉 형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KBS 제1 라디오 뉴스 와이드 1부 이규봉입니다.”

지난 밤 사이 일어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서울 남 스테이크 서초 와드 이규봉 형제. 올해로 방송 5년 차 아나운서인 이 형제는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라디오에서 뉴스를 진행한다.

리아호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양유미 자매입니다. 저는 올해 열두 살이 됩니다. 저에게는 아름다운 가족이 있습니다. 공부랑 컴퓨터를 가르쳐 주시는 다정한 아빠(양준희 형제),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시고 저의 이야기를 늘 귀담아 들어 주시는 친구같은 엄마(김영란 자매), 두 살 아래인 동생 유진(10살)이는 마음이 참 착하고 저를 잘 따르며 학교도 항상 같이 다닙니다. 막내 동생 유선(7살)이는 제일 예쁘고 보조개도 두 개씩 들어가 언제나 사람에게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리아호나가 오는 날을 많이 기다립니다. 리아호나가 오면 우리 세 자매는 먼저 뜯어 보려고 작은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 ‘친구들’에서는 전 세계 어린이 이야기와 간증과 대관장님들의 어린 시절 모습과 간증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감명 깊어 읽었던 이야기는 2001년 2월호에 실린 루스카리나 산체스의 이야기입니다. 루스카리나는 팔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머리를 빗고, 스스로 옷을 입고, 음식을 먹는데 모두 발로 합니다. 그리고 사춘 동생을 도와 주고 구슬 치기, 하모니카 불기를 잘합니다. 만약에 내가 양팔이 없다면 ... !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풀이 죽어 아무 것도 못하면서 동생들에게 복수라도 하는 듯이 마구 심부름을 시켰을 것입니다. 루스카리나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줍

대학교 1학년 때, 이 형제는 학교 방송국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방송에 대한 매력을 느꼈다. 그리고 그 일이 교회 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아나운서로서 꿈을 품게 되었다. 군복무 중에도 꿈을 위한 노력을 쉬지 않았던 이 형제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연령 제한 마지막 해였던 2000년, 한국 방송 공사에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했다.

이 형제는 방송국 안에서 별종이었다. 지혜의 말씀을 고수하면서 언제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것이다. 행동 하나 하나에 교회 이름이 따라 다녔다. 그러나 수많은 기도와 난처한 상황들이 지나자 차츰 주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사회 생활에서 말일성도들이 스스로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면 주님이 도와 주십니다.” 새로운 제작진을 만날 때마다 아직도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점점 이 형제만의 표준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방송 개편으로 오전 4시에서 12시 사이의 방송을 맡은 이 형제는 항상 새벽 단잠을 설치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한다. 해가 뜨지 않은 여의도를 걷는 이규봉 형제가 아나운서로서, 말일성도 대표자로서 항상 변함이 없기를

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남을 배려하며 도와 주는 것 등은 제게 너무 인상적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게 해 준 루스카리나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동생들에게도 모범적인 언니가 되도록 행동하면서 저의 꿈인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매일 책을 2~3권씩 꼭 읽습니다.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매일 가족 정전 읽기와 가족 기도를 하면서 가족 간의 단합과 사랑을 느낍니다. 자연의 움직임은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리아호나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어린이와 어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4년 3월호

13

리아호나에 대한 간증을 보낸 양유미 자매와 두 동생들.

맨 왼쪽부터 양유진, 양유미, 양유선 자매

2004 리아호나 지역 소식 기자 훈련 모임

전국 각지에서 리아호나 지역 소식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기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에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고원용 장로의 감리로 2004년 리아호나 지역 소식 기자 훈련 모임이 열렸다. 이번 모임에는 교회 본부의 아담 올슨 형제가 방문하여 한국 기자들과 만나 취재 방법과 기사 작성법, 사진 촬영법 등을 훈련하였다. 리아호나와 뉴이라, 프랜드 등 교회 잡지의 기사를 담당하는 올슨 형제는 서울의 명소를 찾아 한국 관련 자료로 쓰기 위한 사진을 촬영했고, 신촌 와드 청소년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고원용 장로는 환영 말씀에서 “여러분이 이 부름을 수행하는 모습은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것입니다. … 주님과 일대일로 일하는 것에 긍지를 갖기 바랍니다.”라며 격려했다.



모임을 마친 후 성전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지역 소식 기자들과 아담 올슨 형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고원용 장로

리아호나 지역 소식 기자 명단

강릉 지방부	이정은 기자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장효정 기자
광주 스테이크	박유미 기자	서울 북 스테이크	남경희 기자
대구 스테이크	김창규 기자	서울 영동 스테이크	김정운 기자
대전 스테이크	오순임 기자	수원 스테이크	최미경 기자
마산 스테이크	권순길 기자	순천 지방부	조영직 기자
부산 스테이크	전진우 기자	안양 스테이크	박라헬 기자
서울 스테이크	곽재림 기자	인천 스테이크	조현아 기자
서울 강서 스테이크	정춘영 기자	전주 스테이크	오경권 기자
서울 남 스테이크	김은주 기자	제주 지방부	김정은 기자
서울 동 스테이크	이지은 기자	청주 스테이크	황선아 기자

새로 부름 받은 한국 취업 센터 책임자



서울 영동 스테이크 오륜 와드 송평중 형제와 양계영 자매가 복지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 2월부터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건물 2층에 설치된 한국 취업 센터 책임자로 봉사하기 시작한 송평중 장로와 양계영 자매는 앞으로

로 진로 교육과 상담, 취업 정보 제공하는 일을 할 계획이다. 송평중 장로는 이 부름을 받기 전에 서울 서 선교부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였으며 와드에서 복음 교리반 교사로, 양계영 자매는 기초 복음반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이웃에게 사랑을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에서 지난해 12월 27일, 장애인 수용 시설인 ‘살롬의 집’을 방문하여 쌀과 고기, 화장지 등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였다. 살롬의 집은 1992년에 설립되어 중증 장애인 및 정신 지체자들 22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에서는 그 동안 상호조화가 중심이 되어 매월 와드 별로 봉사 활동을 해 온 곳이다. 살롬의 집 김금자 원장은 “그 동안 따뜻한 봉사를 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느 때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던 금년에 이렇게 훌륭한 도움을 받게 되어 이곳에 함께 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 자리에는 손승주 스테이크 장을 비롯하여,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김삼자 자매 등 스테이크 역원 10여 명이 함께했다.(김승겸 기사 제공)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장인 손승주 형제와 살롬의 집 가족들

상계/속초 지역 영어 캠프

강릉 지방부 속초 지부와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가 겨울 방학이 한창이던 지난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속초 하일라 콘도에서 영어 캠프를 열었다. 캠프에는 상계, 속초 지역 청소년과 초등학교 회원 32명 외에도 구도자 23명, 선교사 8명, 코디네이터 13명이 함께 참가하였다. 영어로 진행되는 일정 속에서 단체 생활과 생활 영어를 배운 참가자들은 캠프 마지막 날 부모님들을 초대하여 참가자들의 캠프 생활을 담은 영상 자료와 활동을 발표하고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상계 와드 선교 책임자인 임경묵 형제는 “교회가 보유한 영어 교육 자원을 잘 활용하면 선교 사업은 물론 회원 복지 사업으로도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며 이번 캠프를 통해 접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선교사와 함께 영어 공부 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

신당동 주민들과 함께한 로버트 할리 초청 강연회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는 1월 28일 로버트 할리 형제를 초대하여 “영어 공부 이렇게 하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약 230명의 이웃 주민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할리 형제는 영어 학습에 대한 강연과 함께 복음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강연회를 마친 후 담소를 나누는 로버트 할리 형제와 신당동 주민들

고, 서울 선교부 선교사들에 대한 소개와 격려도 잊지 않았다. 강연회를 마친 후에는 참석한 주민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는데, 이 사진은 선교사들이 직접 주민들의 집으로 배달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곽채림 기자)

김광운 형제 중소기업 신지식인 선정



광주 스테이크 김광운 형제가 2003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이코바이오 대표 이사인 김광운 형제는 작년 12월 23일 광화문 정부 종합 청사에서 신지식인 증서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1998년 설립한

이코바이오에서 김 형제는 내성이 없는 천연 항생제를 개발하였고 광주 벤처 기업상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광주 스테이크 풍향와드 선교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는 김광운 형제의 수상 기사는 1월 1일자 연합 뉴스와 한겨레, 한국 일보 등 주요 일간 신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박유미 기자)

손정균 형제 장학 퀴즈 장원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 청남 손정균 형제가 지난 1월 18일에 방영된 EBS 장학 퀴즈에 참가하여 주장원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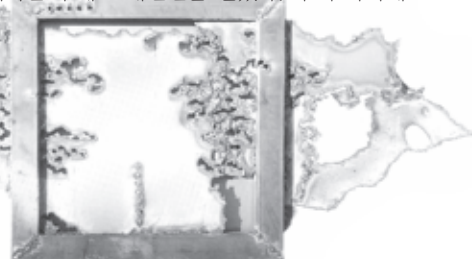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장학 퀴즈에 참가한 손 형제는 “떨렸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꿈같아 보이는 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현재 충암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손 형제는 와드 제사 정원회 서기로 봉사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와드 선교사와 청소년 지도자로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남경희 기자)

박기웅 형제 전시회



서양화가 박기웅 형제가 지난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철의 시대-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우리 나라에



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미술학 박사인 박 형제의 이번 전시회에 서는 철을 소재로 한 조형물을 통해 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고 한다. 연세대학교 앞 광장에 있는 '면학'이라는 벽화 작가로 알려져 있는 박 형제는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대제사 그룹 지도자 및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다.(남경희 기자, 안경찬 기사 제공)

서울 스테이크 초대회 재능 발표회

서울 스테이크 초대회는 지난 1월 31일 서대문 와드에서 재능 발표회를 열었다.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발표회에서는 홍제 와드 어린이들이 인형극을, 청운 와드가 찬송을, 서대문 와드가 택견 시범을, 신당 와드와 농아 지부의 뮤지컬 공연, 삼청 와드가 음악 발표를 선보여 참석한 부모들과 역원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박환수 기사 제공)

제주 지방부 미니 MTC(선교사 훈련원)

제주 지방부에서 지난 1월 31일 미니 MTC가 열렸다. 이 날 모임에서는 '신뢰하는 관계를 맺는' 방법이 소개되었는데, 교회에 오는 구도자 및 저활동 회원과 영어 회화반에 참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뢰 관계를 맺는 방법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역할극이 진행되었다. 모임에 참석한 김병창 형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선교 사업은 저의 특권이고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김정은 기자)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대전 스테이크

공주 와드 감독:이기영(전임: 이항우)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 와드 감독: 박중식(전임: 김만주)

영등포 와드 감독: 김영환(전임: 이상세)

바로 잡습니다

지난 2월호 지역 소식 13쪽 '새로 헌납된 교회 건물' 기사에서 마산 스테이크 김해 지부를 부산 서 지방부 김해 지부로 바로 잡습니다. 16쪽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에서 최승우 장로의 소속 선교부는 대전 스테이크에서 대전 선교부로 바로 잡습니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269기 12명/해외 1명



기미미

부산 선교부
서울 스테이크
홍제 와드



임종일

대전 선교부
서울 강서 스테이크
개동 와드



길찬영

부산 선교부
서울 강서 스테이크
개동 와드



정신예

대전 선교부
서울 스테이크
홍제 와드



박승희

부산 선교부
서울 영동 스테이크
성남 와드



정진

대전 선교부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



박현우

부산 선교부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정진숙

서울 서 선교부
홍성 지방부
서산 지부



백정환

서울 선교부
서울 강서 스테이크
신월 와드



표연정

부산 선교부
서울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안규영

서울 선교부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최은영

밴쿠버 선교부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엄진택

서울 서 선교부
부산 스테이크
광안 와드